

영화 '걸캅스' 9일 개봉

두 앙숙 형사 범인잡기 공조
전형적인 형사 버디물
웃음 타올 그리 높지 않지만
무거운 소재 코믹하게 풀어

오는 9일 개봉하는 영화 '걸캅스'는 전형적인 형사 버디물이다. 보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두 앙숙 형사가 손을 맞잡고 범인을 잡는다는 공식은 따른다.

차별점이라면 여형사를 투톱으로 내세운 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사회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다. 영화를 보다 보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온 '버닝썬 사태'를 저절로 떠올리게 된다. 극중 범죄 수법은 뉴스 속 현실과 판박이다.

연출을 맡은 정다원 감독은 3년 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뉴스와 탐사보도를 보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몇 년 전 뉴스가 똑같이 재현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의미다.

한때는 전설로 불렸지만, 지금은 퇴출 0순위인 민원실 형사 미영(라미란 분), 사고치고 민원실로 쫓겨난 다혈질 형사 지혜(이성경).

시누이올케 사이로 앙숙인 두 사람은 민원실에 신고접수를 하러 왔다가 차도에 뛰어들 한 여성을 목격한다. 둘은 그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로, 48시간 뒤 피해 사진이 업로드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이버 성범죄 수사대 등 경찰 내 다른 조직에 협조를 구해보지만, 여러 이유 사건이 밀려나자 두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공조' 수사에 나선다.

영화는 치밀한 수사 과정보다는 두 여형사의 활약과 악을 응징할 때 주는 쾌감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전개 과정은 다소 엉성하고, 백수 남편 등 남성들은 다소 지질하게 그려진다.

곳곳에 코믹 요소를 제법 많이 심어놓았다. 웃음 타올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의외의 인물이 키메오로 등장할 때는 웃음이 터져 나온다. 민감한 소재인 만큼, 범죄 묘사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상황이나 대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무거운 소재를 코믹하게 풀어낸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전체적인 톤이 고르지 못하고, 다소 산



영화와 현실
똑 ~ 닮았네

만하게 느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등장인물들이 내뿜는 잦은 욕설도 귀를 불편하게 한다.

라미란과 이성경의 연기 호흡은 좋은 편이다. 특히 상업영화 첫 주연을 맡은 라미란은 강도 높은 액션은 물론 코미디, 생활연기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해 캐릭터에 입체감을 불어넣었다.

이 작품은 개봉 전부터 '젠더 이슈'에 휘말리며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무차별 '평정 테러'를 당하고 있다. 네이버 네티즌 평점은 3.14점까지 떨어

졌다.
정 감독은 "걸캅스"라고 해도 여성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다. 남성 혐오적인 시선, 남녀 젠더적인 갈등을 야기시키는 영화는 절대 아니다"면서 "클리셰를 제가 어떻게 비껴나가나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영화 '장기왕:가락시장 레볼루션'을 연출했으며, 이번엔 처음 상업영화 연출을 맡았다. /연합뉴스

사극의 무게감과 젊음 ... '공존' 쉽지 않았다

SBS '해치' 시청률 7.4% 종영
tvN '그녀석'은 2.3%로 퇴장



오랜만에 목직 한 사극을 기대했지만 젊음에 초점에 맞춰지면서 기대한 만큼의 무게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SBS TV 월화극 '해치'는 7.1~7.4%의 시청률을 보이며 종영했다.

최종회에서는 영조(정일우 분)가 위병주(한상진)-이인좌(고주원)의 처단을 발판삼아 반란군을 진압하고 태평성대를 여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치'는 '이산' (2007-2008), '동이' (2010), '마의' (2012-2013), '화정' (2015) 등 굵직한 스케일의 사극을 써낸 김이영 작가가 극본을 맡아 사극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아울러 갖 제대한 정일우가 영조를 맡아 기존에 노화한 영조의 모습 대신 가슴 뜨겁고 울곧은 청춘 영조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주목됐다. 그와 호흡할 박문수 역에 권율, 여지 역에 고아라 등 자연스럽게 젊은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덕분에 '해치'는 시작부터 7%대 시청률을 보였으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기록을 냈다. 코미디를 원하는 시류에 부합한 KBS 2TV '국민 여러분!'과 MBC TV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

하면서 월화극 1위도 비교적 손쉽게 사수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젊으면서도 목직한 사극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특히 그랬다.
출신이 약한 영조가 뜻 맞는 청춘들과 힘을 모으고 왕좌에 올라 개혁을 꿈꾸는 과정이 활기차게 그려졌지만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 노출됐다. 후반부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었던 이인좌의 난 역시 충분한 스케일로 다뤄지지 못했다. 극 초반 노출된 스토리와 연출의 엇박자 역시 아쉬운 점이었다.

tvN '사이코메트리 그녀석'도 전날 2.3%(유료가구)의 시청률로 끝을 맺었다. 장르극임에도 아이돌 그룹 갖세븐 멤버 진영과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스타가 된 신예은의 상큼한 호흡을 볼 수 있어 젊은 시청자의 눈을 붙들었다. 그러나 장르극과 청춘드라마 사이에서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며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은 낳지 못했다. /연합뉴스

박효신, 싱글 '굿바이' 발표 ... "외로움에 대한 곡"

가수 박효신(38)이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6일 싱글 '굿바이' (Goodbye)를 발표한다.

30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굿바이'는 답답한 가사와 박효신의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 서서히 감정을 파고드는 곡이다. 놓아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과거와 애뜻하지만 필연적인 작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박효신은 지난해 4월 '별 시' (別時)를 시작으로 정규 8집 곡들을 한 곡씩 들려주고 있다.

'별 시'에 이어 '굿바이'도 박효신과 뮤지션 정재일이 함께 작업했다. 둘의 음악적인 인연이 시작된 박효신의 '야생화'처럼 깊은 감성의 팝 발라드이자 8집을 대표하는 메인 곡 중 하나다. /연합뉴스

박효신은 "굿바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에 대한 곡"이라며 "슬프지만 이 또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박효신은 6월 29-30일, 7월 5-7·11-13일 약 3주 간 총 6회에 걸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라이브 2019 러버스 : 웨이 이즈 유어 러브?'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 공연을 펼친다. 총 약 10만명 규모로 열리는 무대로, 지난 18일 1차 티켓 예매에선 3회 공연 약 4만5천석이 10분 만에 매진됐다. 2차 예매는 5월 2일 오후 8시 진행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such as '왕초보 영어', '통일의 길', '한국기행(재)',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 (음 3월 28일 己亥)

Table with 2 columns: Hourly horoscope (子, 丑, 寅, 卯, 辰, 巳) and Daily horoscope (午, 未, 申, 酉, 戌, 亥). Provides fortune-telling advice for each hour and day.